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시작하는 사람

새해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시작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하고 창의적  
 인 지혜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또 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새로  
 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창조적인 지혜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용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의 업적 뒤에 숨어서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안일주의자나 원하는 일이지만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타  
 산주의자나 믿음이 없어 전진을 꺼려하는 회의주의자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까 모르지만 창조적인 새 일은 하지 못  
 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나안으로 건너와 이스라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시작만 한다 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 해서 그것이  
 끼칠 영향은 생각지 않고 아무것이나 시작하는 이는 무지와 경박한 소치이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작은 하되 아브라함처럼 수직적으로 종교성이 있고, 공간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여, 시작하되 옳게 시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 2021 위원장들에게 듣는다!

## 서울교회의 새 시대·새 출발을 준비하는 2021년이 되도록



**임상현 장로**  
(당회서기 겸 기획위원장)

올해 우리 교단 제105회 회기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스 10:1, 12 행3:19-21)이고 이에 맞추어 정해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로 시작하여 12절에서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처음 겪는 진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올 초부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참으로 힘든 한해를 지냈습니다.

왜 이런 오랜 진통의 시간과 힘든 한해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

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 교회와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며 새 한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소망하며 새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고,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받으며 교회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 왔습니다.

노회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명실상부 어느 누구도 다룰 수 없도록 교회 행정이 정상화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항준직 선거, 또 가장 시급한 후임 목사 청빙 등을 비롯하여 그동안 5년여 답임목사 문제로 인하여 무너진 서울교회를 재창립 하는 수준으로 새 시

대,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무너졌던 교회 재건에 박차를 가하며 설립 30주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과 혼돈의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시고 진리 편에 서서 오랜 기간 온갖 수모와 고통을 몸소 감내하신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묶어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남은 절차도 온전히 마무리되어 한국교회에 새로운 분쟁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 무너진 한국교회에도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서울교회가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자랑스럽게 회복된 서울교회를 넘겨 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와 충성을 부탁드립니다.

##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차도훈 장로**  
(예배위원장 겸 관리위원장)

교회가 분란을 겪으면 서 예배의 감격과 예배 처소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아픔과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서울교회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꿈 같은 은혜를 덧입은 한 해였습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자리,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지체임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와 봉사를 하는 곳 이요,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3년여의 기간 동안 용역을 동원한 불법점거가 풀린 기쁨도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마치 폐허처럼 된 교회건물 곳곳을 보며 망연자실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회 구석 구석을 치우고 닦아내던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제는 옛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

도 손보고 정리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전한 예배와 각 부서의 모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나 시간들을 내서서 언제라도 교육과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께서는 사무국과 협조를 하셔서 부서별로 배정된 교육 장소를 치우고 청소와 정리 정돈을 해 주셔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고, 기다리거나, 외면을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헌신을 해 오신 성도님들께서 교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2021년 한 해 동안도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 10:1, 12)

”

## Untact와 Smart 시대에 찬양과 선교를 어떻게 할까?



최형철 장로  
(찬양위원장 겸  
선교위원장)

살롬! 찬양위원회와 선교위원회 산하 모든 성도님들,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작년 한 해 얼마나 힘들셨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상을 A.C와 B.C로 나뉘게 하고 할 만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

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학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넘어 자연과 인성을 넘어 영성에까지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가운데에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고, 미디어 없이는 불가능한 생활환경이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대는 문자대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다>는 것이니, 0과 1의 디지털 기반에서 유비쿼터스 라이프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반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고 멀리하거나 회피하거나 역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맙시다. 즉 미디어를 기독교 관점에서 지혜롭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결한 메시지를 담아 찬양과 선교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찬양 사역자들의 각 파트별 모임, 지역별 선교 모임 등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 제작은 물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찬양 대원은 대원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선교도고자는 도고자대로 깊은 기도와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대를 위해서 스마트 활용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하여 미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교회설립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변화의 시대 속에 새로운 회복으로 찬양과 선교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 따라,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더 많은 찬양과 더 넓어진 선교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하며, 힘냅시다! 할렐루야!

“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행 3:19-21)

”

##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교육과 전도전략



이계홍 장로  
(교육위원장 겸  
전도위원장)

서울교회 교육위원회와 전도위원회 산하 많은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은 교육과 전도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으로 대면 예배와 교육, 전도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교육과 전도입니다.

서울교회 교육목표는 천국시민양성입니다. 2021년에도 변함없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라는 표어에 맞추어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전환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교역자와 교사가 구체적으로 실행일치를 보이며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사가 개인의 편의를 앞세우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랑에 거짓이 없는 헌신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명감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집집마다 찾아가는 전도와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비대면 시대에 심적으로 저만큼 먼 곳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민에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70인전도대를 다시 세우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전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대처동 일대의 변화와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전도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도전략에 한마음이 되어 빈약한 자 구제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발걸음을 재촉하겠습니다.

## 서울교회의 새 시대·새 출발을 준비하는 2021년이 되도록



오치열 장로  
(교구위원회 겸  
새가족위원회)

2020년은 한 해 동안 내내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며 지내왔으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무탈하게 하시 옹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이 역병이 물러나서 모든 것이 정상

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교회에 완전한 회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제가 새해에 교구위원회와 새가족위원회

를 맡게 되어 어깨에 짐이 무겁습니다.

교구가족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지만, 인터넷 생일 카드를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애경사와 취업, 승진, 개업 등과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의 소식도 꼭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무한 협조와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적극적인 새가족을 모시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가급적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자 하오니 주위에 가능한 분은 교회로 모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한마당 축제의 장이 열리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일지라도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의 때를 잘 넘겨서 교회가 튼튼한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영적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영적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인도하시고 이 역병에도 우리 성도 누구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극복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만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다 함께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인호 장로  
(재정위원장 겸  
구제위원장)

서울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규정집에 구제위원회는 ‘자기를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 이웃을 섬기는 사랑

의 실천으로 대내, 외의 구제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교회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위로

부터 오는 사랑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힘써 섬기는 구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정위원회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헌금을 복음사역에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예산을 편성하고 교회 부흥과 성도의 신앙 성숙에 기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 예배를 비롯한 많은 일상이 제한되고, 움츠러드는 마음과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서울 교회 목표를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

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선교, 지원교회, 비전2020, 장학, 구제헌금 등을 재정에서 감당하고 별도의 헌금 봉투를 만들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와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교회의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에 걸맞게 성도 한 분 한 분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며, 교회 재정 풍성하게 하셔서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당회원·협동목사·전도사 일동)



#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서울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교회 회복과 재정립 수준의 갱신 등 교회 재건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2021년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표어: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스 10:1, 12, 행 3:19-21)
2. 행동지침:
  - ①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②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 서울교회!
- ③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3. 2021년도 1월 이후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는 성도(전입 교인 포함)는 새가족부 교육을 마친 후 등록 교인 자격을 부여하되 등록카드 제출 후 1년간은 공동의회 회원권을 유보한다.
  4. 그동안 시행하여 오던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에 관하여, 종전 총회나 노회로부터 지원대상을 선정 받아 지원금만 보내주던 방식에서 서울교회가 직접 지원 대상 교회를 선정하여 지급

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이웃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표 차원에서 본 교단 이외의 타 교단 소속 교회와 농어촌 이외의 서울강남노회 소속 미자립교회도 그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시킨다.

5.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농어촌 100교회 운동, 비전2020운동 지원을 위한 개인후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회재정으로 지원한다.

당회를 통해 결정된 많은 행사와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회 봉헌계좌 변경되다 - 온라인 현금 시 사용 -

박노철 목사의 교회예금계좌 무단변경 이후 임시로 개설하여 사용해 오던 계좌가 교회 주거래 은행예금의 입·출금이 정상화됨에 따라 지난해 말로 그 사용을 종료하고 2021년 첫 주일부터는 신규 개설한 아래의 서울교회 명의계좌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사용되던 교회회복기금계좌와 한가정 한선교사 지원,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비전 2020운동지원을 위한 개인후원형태의 현금도 종료한다.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후원하실 성도들은 일반 현금 시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목적현금으로 봉헌하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당회는 절기현금 이외의 장학현금이나 구제현금 등 특정 목적으로 드러지던 현금순서를 넣지 않고 대신 연초 일반 예산에서 해당 항목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더 활발한 사역을 펼쳐 가기로 결정하였다.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 주일현금이나 십일조 등 교회 경상현금에 정성을 다하여 교회재정이 부족하여 교회사역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규개설 된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 2020년 성경통독자

2020년 한해동안 성경통독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음과 같다.

- 1독** : (1교구)송미령 (2교구)최형열 김찬진 최아영 선혜영 이은희 (3교구) 추석우 박정애 송성태 (4교구) 이영희1 (5교구) 양숙란 김혜연 박은영 김신영 문승순 이관모 김정희 홍혜련 김복희 (6교구) 김숙자 이영희 주경자 김영숙 (8교구) 서문석 이봉선 이한나1 (9교구) 전용순 나기태 안재선 김미자 유묘종 (10교구) 조정옥 김경희 최죽희 김홍두 박미라 (11교구) 이은희 장호림 박정선 이진희 (12교구) 임대중 남재은 조상희 김선희 김예환 서상근 정희순 이건희 나미경 최유현 (13교구) 김지수 김순진 김은희9 주화인 전성희 이성희 김소형 오만옥 박미영 박혜정 (14교구) 석상화 안선희 이영재 (16교구) 임송

자 최규초 백도환 (유초등부) 임하울 임하람 우정균 한예승 김하진 이윤의 윤서진 김하윤 김종혁

**2독** : (4교구) 유명석 (5교구) 심화숙 조현정 홍혜란 (9교구) 이영자 이강전 (10교구) 박광훈 (11교구) 박동희 (12교구) 김민아 최근자 (13교구) 조경숙 (유초등부) 조건우 조연우

- 3독** : (5교구) 박은영1 (10교구) 김예지  
**4독** : (5교구) 황선희 (8교구) 강애자  
**5독** : (1교구) 이옥수  
**7독** : (11교구) 김석봉  
**필사** : (4교구) 김영희 (12교구) 이정연  
**필사+타이핑** : (4교구) 최종희

2021년에도 계속되는 성경통독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바란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주현·이주영 김형상·최금숙 감우균·김연화 이건희 전용순

## 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기 바란다.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소요리문답부 강좌가 온라인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심우진 협동목사  
(소요리문답부 담당)

웨스트민스터 총회 (Westminster Assembly)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의회 의원들, 목사들, 신학교수들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친 영국 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모인 회의입니다. 총 백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는데, 청교도가 중심이었습니다. 1647년 4월 20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채택되었고, 1647년 11월 5일에는 소요리문답, 그리고 1648년 4월 14일에는 대요리문답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파란만장한 역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드라마와 영화에서 가장 많이 소재가 된 헨리 8세와 그의 여섯 부인 이야기, 그의 딸들인 블러디 메리와 대영제국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평가되는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이 시절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역사의 격동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이 탄생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은 칼빈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칼빈은 걸출한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테오도르 베자는 칼빈이 죽은 후 그의 직책을 이어받아 수행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존 녹스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칼빈 사상을 전합니다. 훗날 녹스의 제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은 칼빈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을 교리적 표준문서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을 가져왔고, 한국 장로교는 초기부터 표준문서로 사용하다가, 1907년 제1회 독노회에서 공식적인 표준문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장로교의 역사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소요리문답부 강좌는 전술(前述)한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도 함께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교회 곳곳을 정비하고 있는 이때, 신앙적인 면에서도 기초부터 점검하여 튼튼히 세워가는데 기여하는 소요리문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정

■ 승진 : 5교구 유은철 집사 12월 7일부로 SK가스 상무(보)로 승진

■ 수상 : 12교구 오영숙 권사  
용인시로부터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에 2020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표창장과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용인 시민들과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으로 감사장을 받음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4일	월	창 1-3		창 1-7	
1월5일	화	창 4-7		창 8-13	
1월6일	수	창 8-10		창 14-19	
1월7일	목	창 11-14		창 20-24	
1월8일	금	창 15-18		창 25-30	
1월9일	토	창 19-20		창 31-35	
1월10일	주일	창 21-23		창 36-41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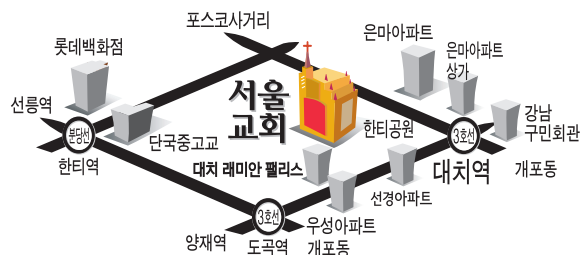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고난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2021년에는 더욱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성령께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